

기획자 커리어 리포트 · 2026

기획자의 일은 어디로 가는가 — 태스크 단위 지도 2026

초안은 AI로, 검증과 책임은 사람에게, 'AI에게 시킬 일의 설계'는 새 요건으로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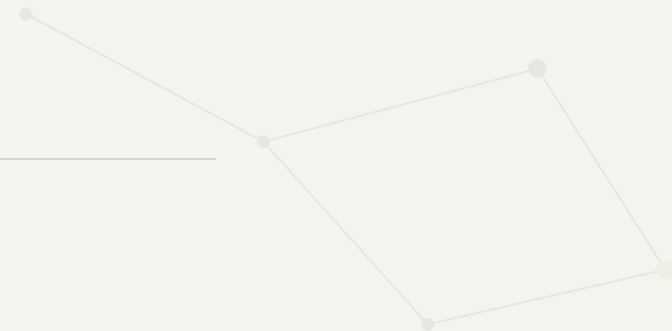
01 **전망과 실제 사용의 간극**

02 **태스크 인벤토리**

03 **한국 현황**

04 **재편의 속도와 시나리오**

05 **결론과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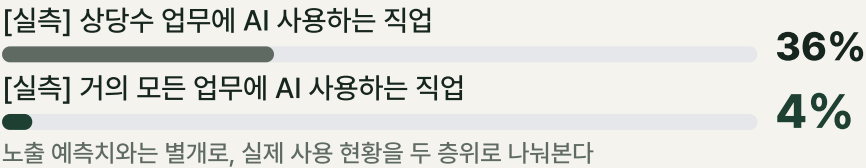
— PART 1 · 전망과 실측의 간극

전망과 실측의 간극

노출도 숫자와 실제 사용의 거리에서 출발

전망과 실측은 다르다 — 노출 80%, 심층 사용 4%

사용 깊이 — 업무의 얼마나 많은 부분에 AI를 쓰나



사용 방식 — 쓸 때 누가 주도하나

항목	값
[실측] 사람 주도 + AI 보조(증강)	57%
[실측] AI가 스스로 처리(자동화)	43%

AI를 쓸 때 사람과 AI 중 누가 주도하는가

[전망] 노동력 영향권 추정

80%

노출도 지수 AI가 특정 업무에 영향을 줄 잠재력을 추정한 지표 — 실제 사용량과는 다른 개념
[Anthropic] [OpenAI / OpenResearch / UPenn (Eloundou, Manning, Mishkin, Rock)]

— PART 2 · 태스크 인벤토리

넘어간 것, 남은 것, 새로 생긴 것

넘어간 것, 남은 것, 새로 생긴 것을 칸 단위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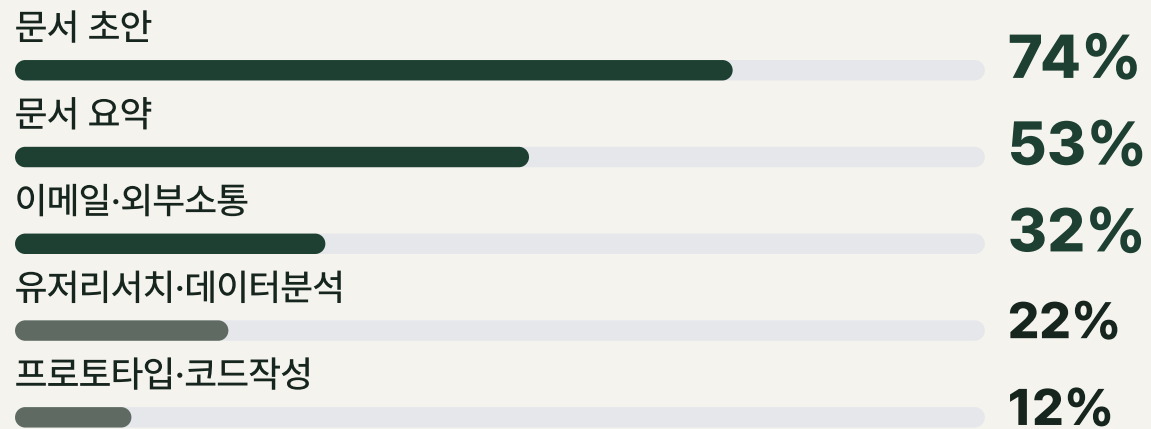
완전 대체는 없다 — 조사한 10개 태스크 어디에도 없었다

기획 태스크 분류		
태스크	위임률	지금 상태
문서 초안 작성(PRD·기획서·보고서)	74%	AI가 초안을 만들고 사람이 검증·수정한다
문서 요약·회의록 정리	53%	AI에게 넘어갔다
이메일 등 외부 커뮤니케이션 초안	32%	AI가 초안을 쓴다
유저리서치·데이터 분석	22%	아직 직접 수행한다
프로토타입·코드 작성	12%	개발팀에 의존한 채로 남아있다
AI 출력 검증·품질 판정·책임 인수	85%	자기 전문성으로 직접 검증한다 — 오히려 커지는 중이다
명세 확정·저니맵 등 고객임 산출물	—	위임에 저항한다, 책임은 사람 몫
이해관계자 조율·계획외 대응	60%	계획에 없던 업무로 일정을 계속 방해한다(간접 근거)
AI 시스템 목표·성과지표 설계	13.8%	채용 공고에 새 요건으로 등장했다(공고 텍스트 재구성 기반, 등급 낮음)
AI 제품 화면·시나리오·정책 설계	—	기존 기획 업무가 AI 제품에도 그대로 이어진다(단일 공고 사례)

이 10개 태스크 어디에서도 완전 대체가 확인된 사례는 없다

초안 — 위임 1순위로 넘어갔다, 단 초안까지다

태스크별 위임률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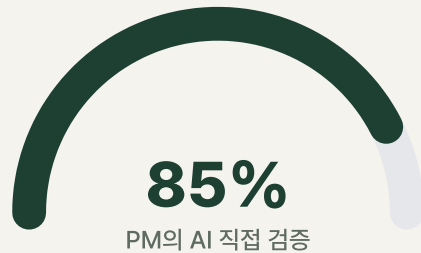
자기 응답과 실제 사용 빈도의 상관은 낮은 편 — 조사 대상도 조기 도입 조직에 쏠려 있다

초안은 검토를 전제하는 산출물이라 책임 부담이 낮은 반면, 명세 확정이나 저니맵처럼 책임이 걸린 산출물은 위임에 저항한다

IC(개별 기여자) 팀장 없이 실무를 직접 수행하는 구성원

[ICSE-SEIP 2026 (Microsoft Research 외)]

검증 — 넘어가지 않았고, 오히려 중심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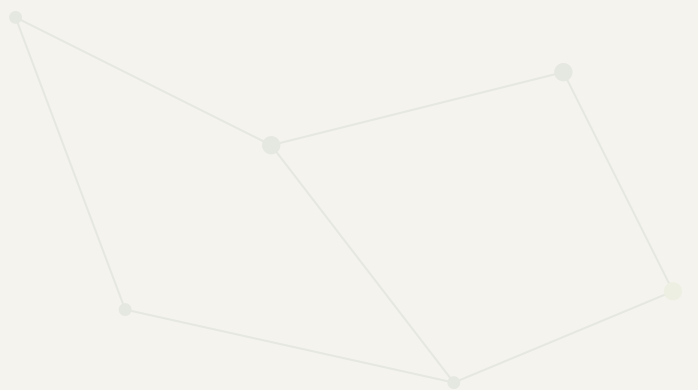
검증을 건너뛴 대가 — 되돌린 기업

74%

PM은 AI가 만든 결과물을 그대로 쓰지 않고 스스로 검증하는 게 기본이 됐다

실제로 상담 인력을 대체했다가 700명을 다시 채용한 기업도 있다

설계 — 'AI에게 시킬 일'이 새 요건으로 등장했다



AI 관련 공고 안 세부직무 구성

항목	값
AI Engineer(모델개발·데이터·인프라)	53.0%
AI Designer(기획·UX·서비스기획)	36.3%
AI+X Specialist(도메인 융합)	10.4%
AI Researcher(연구·알고리즘)	0.3%

AI 공고 전체를 기준으로 나눈 몫 — '설계' 업무 실제 공고 인용은 단일 사례

AI 관련 공고가 112% 늘었고, 실제 채용공고에서도 AI 매칭 시스템의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계하는 업무가 요건으로 명시된 사례가 확인된다

AI Designer vs AI기획자 서로 다른 분류 체계 — KRIVET 학술 분류(AI Designer, 앞장 13.8%와 다른 기준)와 잡코리아 자체 태그(AI기획자)는 겹치지 않는다
[웍스피어(유) (잡코리아·알바몬 운영법인)] [한국직업능력연구원(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KRIVET) — 국민언론뉴스 등 보도자료 재인용] [브랜드뉴스 등 (잡코리아 보도자료 교차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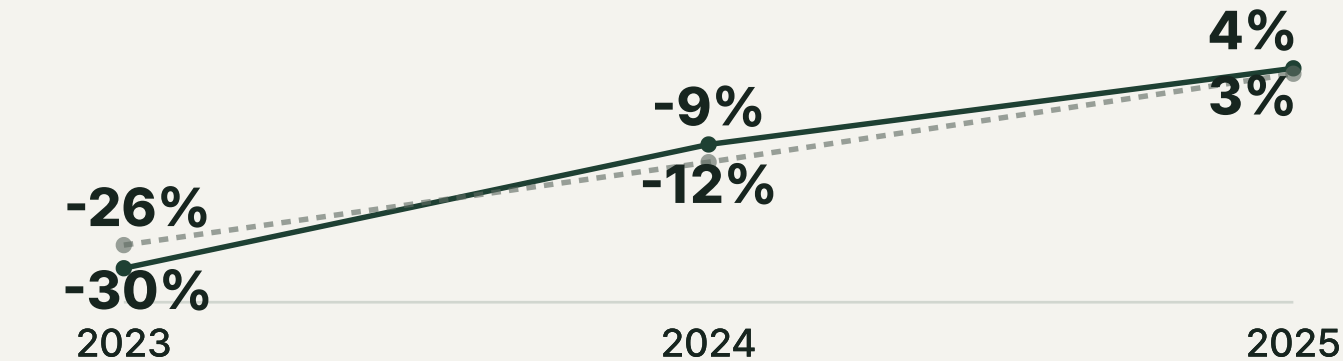
— PART 3 · 한국 좌표

한국 현황 — 공고 실측과 담론의 온도차

공고의 실제 수치와 담론의 온도차를 확인

한국 공고 — 수량은 시장 동행, 실사용은 재직자 사이에서 이미 앞서 있다

기획·전략 공고 vs 전체 시장 — 상하반기 광고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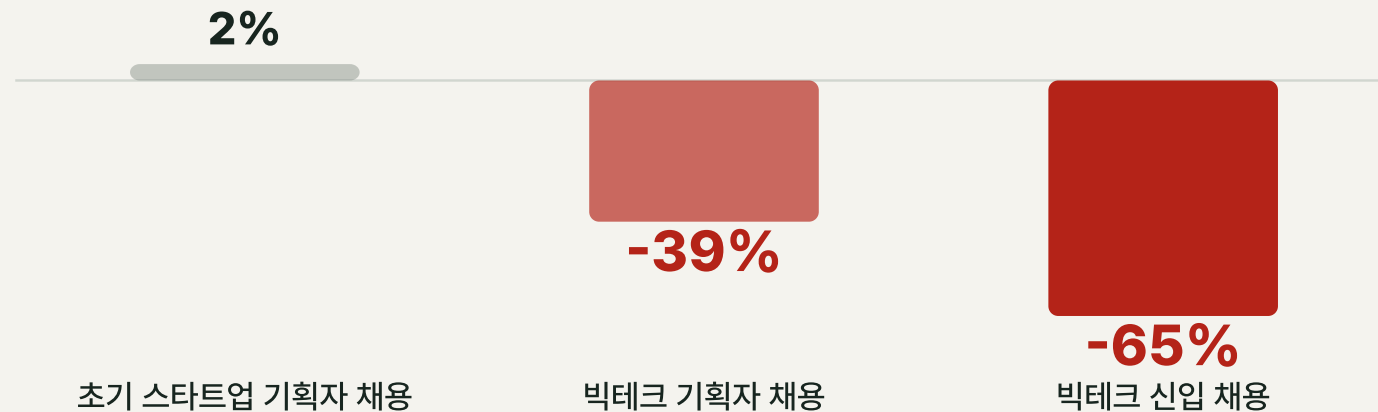


두 선이 거의 같은 궤적이다 — 공고 수 증가가 곧 순고용 증가는 아니다

모집단을 재직자로 뒤집으면 기획/전략은 AI를 종종 쓴다는 응답 50.9%·계속 쓰겠다는 응답 89.8%(전 직무 1위)로 이미 최다 사용 직군이다 — 공고 자체의 AI요건 비율은 국내 미발행

미국 신호 — 'PM 소멸'이 아니라 빅테크 국지 재편이다

빅테크 한정 vs 그 밖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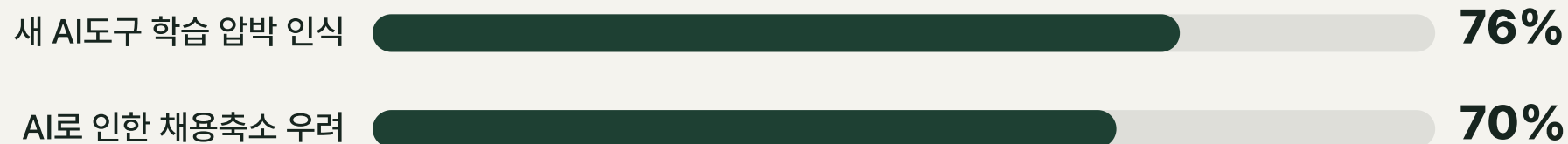


방법론 비공개 자료라 AI·경기 위축 중 원인을 가릴 수 없다

PM별 관리 엔지니어 수는 22% 늘었고, 빅테크 채용 중 SW엔지니어 비중은 46%에서 55%로 오르며 빌더 중심 재편이 함께 진행됐다. 다른 전망 자료에서는 프로젝트 매니저가 앞으로 순증가하는 직군으로 꼽힌다

담론의 시차 — 한국의 불안은 미국에서 수입됐다, 실측은 요건 변화다

한국 담론의 온도



담론의 온도와 달리 한국 기획·전략 공고는 늘고 있다(2026상반기 9%) — 불안의 근원인 미국 빅테크 감소(-39%)는 직무 범위가 달라 한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PART 4 · 재편의 속도와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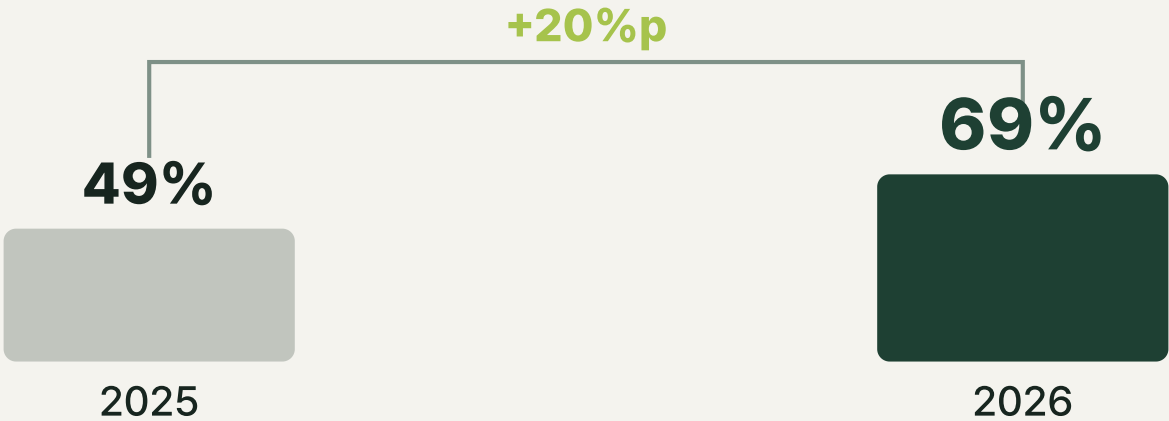
개인, 조직, 신입 채용

개인, 조직, 신입 채용의 각기 다른 속도를 확인

속도 — 개인은 이미 옮겼고, 조직은 아직이다

검토에서 실행까지		
영역	검토	실행
조직 재설계(pod 구조)	53%	16%
한국 채용 AI 도입	63%	3%

PM의 AI 빈번 사용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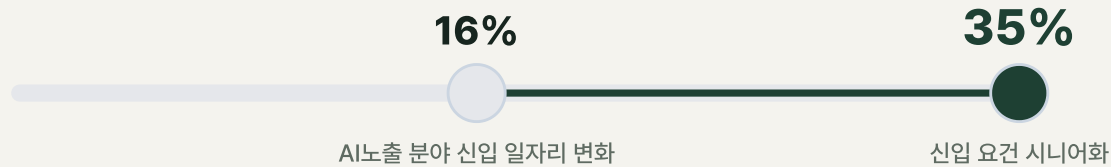


성급한 도입 뒤 되돌린 사례도 있다 — 개인은 이미 하루하루 쓴다(IC 매일 사용 75%)

[Deloitte AI Institute] [아시아타임즈 (잡코리아 AX 채용 리포트 보도)] [Product Focus] [ICSE-SEIP 2026 (Microsoft Research 외)]

진입 — 사라지는 것은 태스크가 아니라 신입의 기회다

줄어드는 신입 채용



빅테크 신입 채용 변화

-65%

한국 신입 AI공고 증가 · 5년 기준

162%

한국 신입 AI공고 증가 · 최근 5개월

80%

청년 AI노출 취업자 (24년) · 22년 대비

15% ↓

주니어가 훈련받던 초안·정리 업무가 이미 AI로 넘어간 업무(위임 74%)와 겹치는 게 원인 중 하나다 — 단 경기 둔화와 겹쳐 있어 AI만의 영향이라 단정하긴 이르다

세 시나리오 — 조직 재설계 속도가 다음을 가른다

기본 시나리오 — 얇고 넓은 증강 지속

지금 수준의 사용 깊이가 그대로
이어지는 상황

상당수 업무에 AI 쓰는 직업

36%

거의 모든 업무에 AI 쓰는 직업

4%

가속 시나리오 — 전망 지표의 현실 전환

예상되던 자동화가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

[전망] 3년 내 부분 자동화 예상 기업

82%

[전망] 2년 내 에이전틱 AI 확산 전망

74%

부정 시나리오 — 진입 절벽과 고용 정체에 한국 도달

미국 신호가 한국에 본격적으로
도달하는 상황

빅테크 신입 채용 변화

-65%

청년 AI노출 취업자 (24년) · 22년 대비

15% ↓

관찰 지표

분기마다 확인할 세 가지 수치

조직 재설계 착수율

16%

에이전틱 AI 현재 도입률

23%

한국 신입 AI공고 증가율

162%

에이전틱 AI 목표만 주면 계획을 세우고 여러 단계를 스스로 실행하는 AI 방식

[Anthropic] [Deloitte AI Institute] [SignalFire (VC)]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1

— PART 5 · 결론과 제언

결론과 제언

초안은 AI 몫이 됐다 — 그래도 책임과 새 요건은 사람에게 남는다

직업 단위의 완전한 대체는 없다 — 한국 기획자의 실제 위험은 직군 소멸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지 않는 것이다

초안 위임

74%

AI 출력 직접 검증

85%

AI공고 내 'AI기획자' 비중

13.8%

기획자의 경쟁력은 AI에게 시키고 그 결과를 검증하는 능력으로 옮겨간다

- 초안·요약·정리는 더 이상 차별화 포인트 아님: 위임 74%로 이미 표준, 검증 절차 함께 설계 필요
- AI 출력 검증 능력(85%)이 진짜 실력: 부수 업무가 아니라 핵심 역량으로 경력에 명시
- 'AI에게 시킬 일 설계'는 소수(13.8%)지만 채용 요건에 등장: 지금 준비하면 선점 가능
- 신입은 AI공고 급증(162%↑)이 기회: 전통 경력보다 AI 활용 능력 증명이 유리
- 조직 재설계는 아직 초기(16%): 재설계율·에이전틱 도입률·한국 공고 요건을 분기마다 점검

초안은 AI에게 맡기고, 검증 능력을 키우고, AI 시스템 설계 역량을 지금부터 준비하라

출처

잡코리아 잡코리아 데이터로 읽는 2026 하반기 취업·이직 전망

아시아타임즈 (잡코리아 AX 채용 리포트 보도) 잡코리아, AX 채용 리포트 발행

미리비트 경력 AI Agent 기반 업무관리 플랫폼 기획/PM 채용공고 — 관찰 스냅샷

World Economic Forum The Future of Jobs Report 2025

서울경제 (잡코리아 데이터 보도) AI 인재 채용 공고 70%↑...IT 넘어 전 산업으로 번졌다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AI 기술 확산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노동리뷰 2026년 2월호 이슈분석)

한국고용정보원(KEIS) / 워크넷·고용24 한국직업정보시스템(KNOW) 및 한국직업사전 — 재직자조사 체계

Product Focus 2026 Survey of the Product Management Profession

웍스피어(유) (잡코리아·알바몬 운영법인) [웍스피어] AI 매칭 엔진 PO(5년이상) 채용공고 — 관찰 스냅샷

SignalFire (VC) SignalFire's State of Tech Talent Report - 2026

Anthropic Introducing the Anthropic Economic Index (initial report)

브랜드뉴스 등 (잡코리아 보도자료 교차보도) 잡코리아 AI 채용공고 동향 — 2026년 1분기 기준, 5년전 대비 112%↑

TokenPost (TV조선 메타콘 2026 보도) [메타콘 2026] AI가 '기획자'를 대체할까...생존 전략은 '휴먼 터치'

PwC Korea / PwC Global 2026 Global AI Jobs Barometer: AI 시대의 일자리, 두 가지 미래

Deloitte AI Institute State of AI in the Enterprise (7th ed.) — The untapped ed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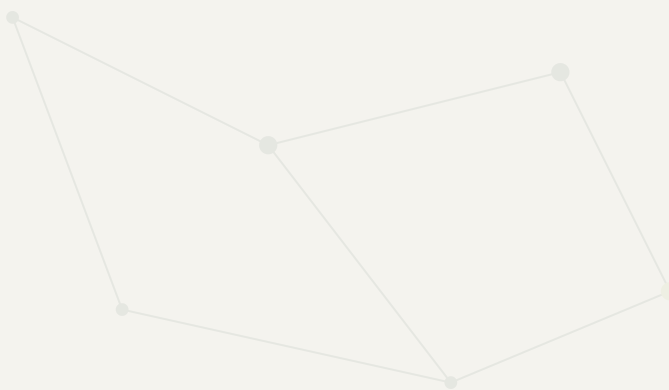
한국직업능력연구원(KRIVET) — 국민언론뉴스 등 보도자료 재인용 [KRIVET Issue Brief 319호 재인용] AI 진로의 통념을 넘어

ICSE-SEIP 2026 (Microsoft Research 외) Product Manager Practices for Delegating Work to Generative AI

AIIntelligenceHub (Sinch 서베이 재보도) Why 74% of Companies Are Pulling Their AI Agents After Deploying Them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Workers' exposure to AI: What indicators tell us – and what they don't (Research Brief)

OpenAI / OpenResearch / UPenn (Eloundou, Manning, Mishkin, Rock) GPTs are GPTs: An Early Look at the Labor Market Impact Potential of Large Language Models



펍핀치 리포트

감사합니다.

PEPPINCH

pepper@peppinch.com